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개인의 자세와 과제

장 석 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석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평생학습의 적신호와 청신호

평생학습이란 용어는 90년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적 실상을 반영하는 청신호였다. 뒤쳐진 사람들을 이끌어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여유로움의 반영으로서 이루어진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강조되기 시작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전해야 할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나가지 않으면, 직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무한경쟁시대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발전은 새로운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2000년대로 넘어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의 진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빨라짐으로써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응 없이는 직장인으로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직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만, 개인차원에서 이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II. 경제사회의 발전과 직업세계의 변화

1. 세계화의 진전과 직업세계의 변화

한국의 산업은 경공업 및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은 공업 기능인력 양성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지식정보산업, 첨단기술산업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직업기술교육에서도 세계문화 및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의 인문교양교육에서 직업적 실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기술교육 기관에서도 이론과 실기를 통합한 실무위주의 모듈식 교육에 대한 요구, 현장실습교육의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과 직업세계의 변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지식기반산업사회의 생산양식변화는 일과 직업세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러한 일과 직업세계의 근본적 변화는 직업인들에게 많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능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역할 수행능력, 몇 개의 언어 소통 능력, 일의 주도력과 위험 감수력, 정보기술 사용능력, 책임성과 독립성, 작업장의 안정과 위험관리 능력, 협동과 사교능력, 창의적 사고와 행동능력, 시간관리 능력, 질관리 능력 등.

3. 환경문제의 대두와 직업세계의 변화

80년대 이후 쾌적한 환경의 보전과 복원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WTO의 출범 이후 환경문제는 통상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경제성장, 후환경보전이라는 기존의 정책적 틀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선진국형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4. 자격과 능력위주 사회로의 발전과 직업 세계의 변화

기술혁신과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인재 양성 및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력중심 사회로부터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새로운 기술의 학습을 위해 평생교육을 보편화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기능인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Ⅲ.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자세와 과제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하여 세계 표준을 능가하는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교육경력과 직업경력 및 사회경력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국민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의 기본방향과 자세 및 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학습능력 및 학습 흥미가 필요하다.

기초학습능력은 다른 학습을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서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기초학습 기능은 학교학습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기초능력으로서 중요하다. 평생학습은 기초학습 기능의 토대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 기초학습기능의 학습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은 직업능력개발의 중요한 전제과제이다.

2. 외국어 및 외국문화 이해능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는 필수이며, 외국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고서는 국민 모두가 21세기를 원만하게 살아 갈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는 살아가는 전략으로서 외국어 및 외국문화 이해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적성을 포함한 자아 특성을 발견하고 계발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과 개성이 뛰어난 제품

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은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 및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창의성과 능력 및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의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

점차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경험과 이해가 올바른 직업선택과 성공적 직업적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일과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출발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 능동적 직업선택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질 것이며 일생동안 여러 번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변경해야 된다. 따라서 현명한 의사결정 능력 및 선택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직업선택을 포함하여 인생을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가 중요하다.

6. 직업군 공통기초 기능을 학습해야 한다.

기계화, 자동화가 촉진되면서 업무영역이 통합되거나 넓어지고, 고학력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군 접근법(Job Cluster Approach)이 필요하다. 직업군 접근법은 유사직종들을 직업군으로 통합하여, 각

직종의 공통적 기초기능을 추출하여 가르침으로서, 학습결과의 전이력과 적응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직업 적응력의 토대가 되는 기초기능의 학습, 기술영역간 통합적 학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7. 현장직무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현장직무 능력의 배양이다. 이를 위해 기업현장에서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산학협동이 강화되어,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내의 교육과 학습, 또는 외부의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배워 나가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거나 얻어내는 능력이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IV. 맺는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평생학습은 모든 직업인들의 생존수단이 되었다. 직장에서의 성공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학습에서부터 그 기초를 다져야 하며, 일생을 통한 학습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 각자의 노력이 실천되려면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계속 교육기관, 직장 및 기업내 교육 프로그램, 자학자습에 대한 평가 인정제 등 다양한 제도와 기회가 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